

2017 영종도 갯벌·철새의 날 영종도 갯벌사랑 글짓기대회 중고등부 심사평

2017 영종도 갯벌·철새의 날 ‘영종도 갯벌사랑 글짓기 대회’에 응모한 작품에는 좋은 글이 많아 수상자를 선정하기 힘들었다. 요즘 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기에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읽었다. 대부분의 응모작이 편차가 심하지 않았다. 우열을 다투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 참가자 모두 갯벌을 사랑하는 열렬한 실천자라고 느껴져 더 없이 기뻐다.

조민서 「칠계를 찾아서」는 상상력이 기발하다. 철새를 의인화해 풍자한 글쓰기는 갯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적절했다. 먹이가 줄어들자 철새들은 모여서 회의를 한다. 회의 결과 영종갯벌에 칠계가 많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유인 즉 바다 쓰레기인 통발을 사람들이 회수해서 갯벌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철새와 사람 모두 삶의 터전인 갯벌을 지키는 것이 서로를 살린다는 이야기가 공감을 준다.

현윤진 「천방지축 갯벌 이야기」는 갯벌 모니터링을 한 경험을 담담하게 그렸다. 갯지렁이, 백합, 민챙이, 칠계, 서해바다고둥 등 여러 갯벌 동물을 관찰했다. 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갯벌 모니터링 동아리인 ‘계는 활동’을 하면서 갯벌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했다는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하다. 갯벌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있다.

곽한이 「세대를 잇는 철새」는 영종도로 이사 온 후 비로소 서해 갯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갯벌·철새의 날을 맞아 체험활동을 하면서 갯벌은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철새들의 소중한 서식지이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는다. 세대를 잇는 철새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인간의 미래도 없다는 자각은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사회에 나가서도 갯벌 사랑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활동 방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대회에 참여한 보람이 빛난다.

정지용 「갯벌사랑 나의 작은 실천」은 갯벌 사랑을 실천하려는 생각이 깊이를 갖췄다. 한국지리 시간에 배운 정수기 역할을 하는 갯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 많지만 정작 사람들은 갯벌의 소중함을 모르고 파괴한다는 문제의식이 좋다. 새만금 건설 등으로 파괴된 갯벌을 보면서 유럽에서 벌어지는 간척지나 훼손된 갯벌을 복원시키는 ‘역간척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생물은 살고 있는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표 생물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옳다. 지표생물은 곧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 역시 갯벌 사랑의 시작이다.

신서영 「다시 찾아온 갯벌」은 갯벌을 어머니의 품으로, 아늑한 고향으로 느낀다니! 어머니가 없으면 절망하듯 갯벌이 없다면 지구도 온전치 못하다는 인식이 돋보인다. 어렸을 때 장화를 신고 갯벌에서 조개를 잡았던 경험이 불편함이었다면,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것은 살아 숨 쉬는 작은 생명체의 발견이다. 철새에게 갯벌은 어머니와 같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 역시 갯벌을 고마운 존재로 기억했으면 한다. 갯벌사랑 대회에 참가하면서 작은 생명체들과 인간에게 삶의 희망을 선사하는 안식처로서의 갯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잘 그렸다.

김수현 「갯벌은 자연이고 자연은 우리다」는 초등학교 때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도감을 접하고 영종도 갯벌을 와 철새를 보았던 체험으로 시작한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갯벌이 살아진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안타까워한다. 갯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위기감과 갯벌 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갯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 갯벌 살리기 캠페인 등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목에서 “소리 없이 아파하는 갯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인다. 갯벌은 인간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철새, 생물 등이 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다. 생물의 다양성이 지구를 살린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갯벌은 자연이고, 자연은 우리다”라는 마지막 외침이 가슴에 와 닿는다. 생물 다양성이야말로 지구를 살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까지 살린다는 생태적 발상은 ‘영종도 갯벌·철새의 날’을 개최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글을 쓴 수상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중고등부 심사 장봉수, 이상권, 이세기, 송수연)